

달성서씨감찰공파 증산문중 청년회 분기 모임 개최

3월28일 18시에 산마루에서 20여명이 참석하여 증산문중 청년회 분기모임이 있었다. 서동학 회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고, 문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건강하게 지내자.”는 인사말을 하였다. 서종우 신임회원 인사가 있었다.

글, 사진 증산문중 청년회 사무국장 서태진



서영욱 화인테크놀로지 대표, 한국수필 신인 작가상 수상



㈜화인테크놀로지 대표이자 공학박사인 서영욱 수필가는 최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국수필가협회(이사장 권남희)와 월간 ‘한국수필’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 문학상-신인상 시상식-송년회’ 행사에서 제18회 한국수필 신인 작가상을 받았다.

서영욱 수필가는 월간 ‘한국수필’ 2025년 9월호에 게재된 ‘그림자를 벗고, 본래의 빛을 보다—플라톤의 동굴을 연기(緣起)의 지혜로’와 ‘스토리가 풍경을 이긴다—로렐라이 언덕에서’ 라는 두 편의 수필로 신인 작가상을 받았다.

경남신문 2025.12.16.기사발췌

마을 신타 주변 정리

마을 입구 당산 옆에 마을신타가 있다. 편하고 시원하게 쉬 수 있는 장소다. 주변 공터가 정리가 안 되어 산만하였는데, 풀꽃교회(서천성 목사)가 현판 작업을 하면서 조경 공사를 하여 소공원처럼 조성이 되었다.

또한 느티나무 잎이 쌓여 의자 주변이 어지러웠는데 풀꽃교회 김기연 성도가 깔끔하게 청소를 하여 깨끗해졌다. 살기 좋고 보기 좋은 매곡마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글, 사진 송영숙 기자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정체현상

천불사에 남골담단극락원이 있다. 명절마다 자가용 참배객이 많이 찾는다. 은진사 입구 삼거리부터 천불사 입구 삼거리를 거쳐 마을회관까지 양쪽으로 주차하여 왕복 4차선 중 2개 차로 통행이 어렵다. 천불사 입구 삼거리 좌회전 차량으로 인하여 매곡마을 차량 진입이 상당히 지체된다.

천불사 극락원은 교통정리를 하여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글, 사진 서원수 기자



풀꽃카페 무료 개방

2026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설 연휴

설을 맞아 고향 방문을 하는 이웃을 위해 풀꽃교회(서천성 목사)가 풀꽃카페를 무료 개방했다. 2월 16일 낮 12시부터 18일 낮 12시까지 매곡 주민, 매곡이 고향이신 분, 매곡 친지 방문하신 분이 이용 대상자였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행복한 설을 보냈다.

글, 사진 송순금 기자



마을수도 이설한 도로포장 완료

2월 13일 개발위원회에서 결의한 마을 수도 이설한 도로포장을 3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완료하였다.

글, 사진 서원수 기자



자투리 소식

- 2025.12.24. 서인주 아들 영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 신규 임명(보협담당)
- 2026.01.08. 덕계동 주민자치회 서유기 회장 취임
- 01.10. 매곡문중 주민총회
- 01.11. 경로회 정기총회
- 01.19. CBS 새롭게하소서 : 풀꽃교회 서천성 목사 방영
- 01.26. 덕계동 순회간담회
- 02.02. 서유기 부친(상남택 서병률) 별세
- 02.10. 달성서씨울산문화회 회장 서진철 별세
- 02.13. 매곡마을 개발위원회의
- 02.15. 매곡청년회 마을청소
- 02.16.-18. 풀꽃카페(서천성 목사) 무료개방
- 02.22. 달성서씨감찰공파 증산문중 문자채자 후손회 정기총회
- 02.28. 달성서씨감찰공파 증산문중 도홍조 후손회 사무실 개소식
- 02.28. 달성서씨감찰공파 중회 서영조 회장일행 증산문중 방문 (증산사, 주부공 묘역 참배)
- 03.02. 풀꽃교회(목사 서천성) 현판 제막식
- 03.03. 매곡당산제(정월대보름)
- 03.08. 매곡마을신문 편집회의
- 03.10. 경로회 정기모임
- 03.23.-24. 마을수도 이설한 도로포장
- 03.27. 병오년 춘기 총렬사제향 : 양산향교
- 03.28. 증산문중 청년회 분기모임
- 04.01. 협력기관 협약 : 매곡마을, 풀꽃교회, 베데스다복음병원
- 04.02.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11회실시)

후원내역

일 자	성 명	금 액(원)	비 고
2026.01.22.	서동진	30,000	
01.22.	서태진	100,000	
03.11.	서영욱	3,000,000	(주)화인테크놀로지 대표
04.03.	웅상농협	1,000,000	조합장 안우우
합 계		4,130,000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불선암 일범스님, 서부기, 서상률, 서웅기, 서원수, 송정복은 정기후원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원합니다.

계좌번호 안내

농협 351-1066-5389-53 매곡마을신문

매곡마을신문

양산 최초 마을신문

발행인 서재수
 편집국 서울기 국장, 서동만 부국장, 서영수 부국장
 기 자 강영우, 김현숙, 박순이, 서원수, 서정수, 서정호, 송순금, 송영숙, 이동원, 정성원, 허해정
 재 무 송영숙
 전 화 010-9289-1046
 이메일 s5851@hanmail.net
 인쇄처 덕계인쇄사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외산로 216

매곡마을신문

양산 최초의 마을신문

촌사람 이바구 제작소 /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외산로 216 / 2017년 1월 1일 창간

| 신고번호 (양산, 바9호) |

제37호 2026년 4월 3일(금)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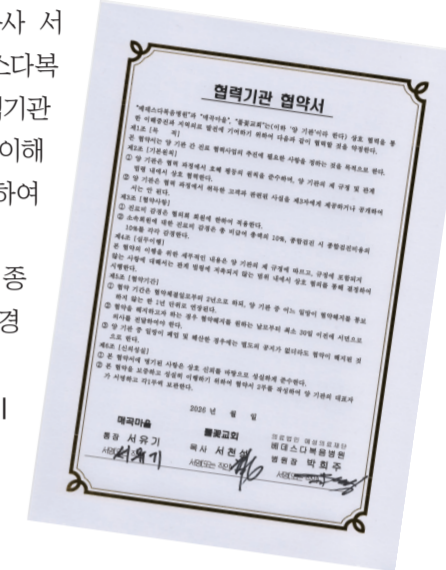
매곡마을, 풀꽃교회, 베데스다복음병원 협력기관 협약



매곡마을(통장 서유기), 풀꽃교회(목사 서천성), 의료법인 예성의료재단 베데스다복음병원(병원장 박희주)은 4월 1일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을 통한 이해 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을 약정하였다.

소속 회원은 총비급여 총액의 10%, 종합검진 시 종합검진비용의 10%를 감경하기로 했다.

글, 사진 매곡동 통장 서유기



2026년 덕계동 순회 간담회 개최

1월 23일 덕계동에서 나동연 양산시장 시민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매곡마을통장 서유기는 '노후 마을회관 시설 개선비 지원' 건의를 하였다.

- 경로당의 경우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및 '경로당 기능보장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 경로당에 대해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지만, 마을회관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 보수비 전액을 마을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마을회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함.

글, 사진 송영숙 기자



개발위원회의 개최

2월13일 저녁 6시에 '꽃피는시골그집'에서 매곡마을 개발위원회의를 개최하다.

1. 매곡외산로 공사는 그린공간 오수 이설작업이라 설명하다.
2. 덕계소하천 산책로는 사유지가 많아 불가하다.
3. 매곡마을신문 10주년 행사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다.
4. 매곡소하천 정비는 아랫마을 쪽에 실시하기로 하다.
5. 당산 석축을 자연석으로 교체하도록 재차 건의하기로 하다.

마을 총회 건의 사항 중

1. 흥재 쪽 좌회전은 불가하다고 연락받았다.
2. 마을버스 회차를 마을 위쪽으로 이전 요청하였으나, 회차가 어려워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 '꽃피는시골그집' 입구까지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재요청하기로 하다.
3. 마을안길 차선도색을 완료하다.
4.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일부가 누락되어 재요청하기로 하다.
5. 마을수도 이설 포장작업과 마을회관 누수작업을 하기로 하다.

글, 사진 서영수 기자



제3기 덕계동 주민자치회 출범 및 이·취임식 개최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 및 참여 활성화 기대

양산시 덕계동은 지난 8일 제3기 덕계동 주민자치회가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장을 수여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책임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과 정기회의, 이·취임식으로 진행됐다.

위촉장을 수여받은 신임 위원들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새롭게 선출된 주민자치회장과 임원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새로 취임한 덕계동주민자치회 서유기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더욱 살맛나는 덕계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과별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산타임스 윤지영 기자 2026.01.09.기사 발췌

매곡경로회 정기총회 개최 및 경로회 모임 실시

1월 11일 매곡경로회 정기총회가 경로당에서 2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2025년 감사보고 및 결산, 업무보고가 있었다. 서병훈 회장은 “지난해는 더위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 화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했다. 강동덕 아들 서정호의 딸 문희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할 축

하하는 덕을 할머니께서 경로회원께 선물하여 박수를 받았다. 2월은 설날 단대목이라 건너뛰고 3월10일에 정기모임을 가졌다. 평소 경로회장이 수육을 직접 삶고, 회원들이 반찬을 준비해왔는데 이날은 중국집에 배달하여 맛있게 먹었다. 건강하게 지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다.

글, 사진 경로회 총무 서원수



“새롭게 하소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와서 풀꽃사랑채를 설립(2019년 4월 9일)한 후 그레도 나의 정체성은 목사였다. 2019년 10월 3일 풀꽃교회의 설립예배를 드렸고 교회 간판은 세우지 않았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교회다움, 이런 부분의 정리와 공감기 우선이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영역부터 시작하고 이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영역으로 서서히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였다. 오륜교회 농어촌선교회 담당자가 최선규 아나운서를 소개시켜 주어서 2025년 8월 10일에 풀꽃교회 강사로 왔다. 이후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최선규 아나운서의 추천으로 연락이 와서 2025년 12월 10일 녹화하고, 2026년 1월 19일 방영하였다.

글, 사진 풀꽃교회 서천성 목사



유튜브 : 새롭게하소서 CBS 420년간 예배처소가 없었던 동네에서 벌어진 일기 / 서천성 목사 무속신앙의 본산에서 피어낸 믿음의 씨앗

원산댁 윤금선 여사 100세 축하합니다

우리 매곡마을은 장수마을이다. 병오년에 100세가 되신 어르신께서 우리 마을에 살고 계신다. 원산댁 윤금선 할머니입니다. 아직도 매곡집에서 거주하고 계신다. 경로회에서 축하선물을 전달하였는데 말씀도 잘 하십니다. 2023년도에 송정댁 한봉열 여사가 100세를 맞았었는데 지금도 부산 딸네 집에 살고 계신다.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길 빕니다.

글, 사진 매곡 경로회 총무 서원수



‘엄마의 자궁같은 매화골 이야기’ 출판 SHOW

저자 강열우의 매곡마을 10년, 공간과 사람을 기록하다

4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풀꽃교회에서 저자 강열우의 출판 SHOW가 열릴 예정이다. 매곡마을신문 서원수 사무국장님이 주관한다. 이 책은 한 개인의 회고록이 아니라, 한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생활 사적 수필집이다. 저자는 매화골(매곡마을)에 정착하며 만난 노인, 여성, 이웃, 사라져 가는 풍습과 놀이, 공동체의 기억을 ‘이바구리는 구슬적 형식’으로 기록해 왔다. 이 수필들은 개발과 고령화로 빠르게 사라지는 농촌 공동체의 일상을 현재형으로 붙잡는 동시에, 노년의 삶과 관계, 치유의 가능성을 문화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이 책은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버텨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던지며, 독자에게 자기 삶의 기억을 돌아보게 하는 힘을 지닌다.

글 서원수 기자



매곡청년회가 설맞이 마을 대청소



설을 맞아 매곡청년회(회장 서정호)는 2월 15일 마을청소를 실시했다.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개천 등 여러 곳을 다니며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였다.

겨우내 바람이 많이 불어 개천에 쓰레기가 많았는데, 설맞이 마을 청소에 참여한 회원들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분들이 깨끗한 마을을 보며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매곡청년회 회장 서정호

경로당 싱크대 교체

매곡경로당 싱크대를 교체하여 세집에 온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좋았다.

덕계동행정복지센터에 감사드립니다.

글, 사진 매곡 경로회 총무 서원수



2026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실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4월 2일부터 11회차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1시간씩 이선영 선생님의 지도로 건강교실을 실시한다. 건강한 모습으로 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사진 매곡 경로회 총무 서원수



달성서씨감찰공파종회 서영조 회장과 임원진이 매곡 증산사와 주부공 산소를 참배하다

2월28일 달성서씨감찰공파종회 서영조 회장과 임원진이 매곡을 방문하였다. 증산(매곡) 문중에서는 서능기 문장과 서연호 울산-매곡 돈목계 회장이 동행하여 증산사와 주부공 서몽호 입향조 산소를 참배하였다. 서영조 회장은 증산(매곡) 문중이 중회 행사에 협조

를 잘하면서, 조상을 존중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서능기 문장도 대종회에서 방문하여 참배한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였다.

글, 사진 문중 총무 서영수



달성서씨감찰공파 증산(매곡)문중 도흥조 후손회 사무실 개소식

2월 28일 경남 양산시 매곡외산로 118에서 달성서씨감찰공파 증산(매곡)문중 19세 도흥조 후손회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다.

달성서씨감찰공파 종회 서영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대구에서 참석하였고, 증산문중 서능기 문장을 비롯한 각 파

중 회장과 청년회 회장,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종중원 11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행사였다.

서만동 회장은 “후손회 회원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치를 남겨주도록 노력합니다.”라고 인사말씀을 하였다. 서영조 총회 회장은 “사무실 개소는 단순히 공간 하나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선조들께서 지켜 오신 전통과 정신을 오늘의 후손들이 스스로 이어가고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축사를 하였다.

사무실 연혁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료 관리와 회의 사무실을 갖추기위해 1년여 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글, 사진 서원수 기자



풀꽃교회 현판식

2019년10월3일 풀꽃교회의 설립예배를 드리고 교회현판(간판)도 세우는 날이 오기를 막연하게 기도하였다. 교회 구성원들과 마을 분들의 합의가 있는 언제일지는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2025년 7월 31일 청년부 선교팀이 머리염색을 하고 매곡마을분들과 밀면을 먹었다. 8월 10일 최선규 아나운서 초청집회 이후 꽃피는시골그집에서 매곡마을분들과 오리백숙을 먹었다. 8월 중순 이후 동네 어르신들 몇 분이 풀꽃교회 서천성 목사를 찾아와서 자신들은 당장 종교를 바랄 수 없지만 “니도 먹고 살아야 되니, 교회 간판이라도 달아서 터계에 있는 사람들도 간판보고 오도록 간판 설치하라.”고 권유했다. 성도들에게도 물어보니 다들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하였다.



풀꽃교회 현판식이 동네 잔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날짜를 공휴일인 2026년 3월 2일(3.1절 대체 공휴일)로 정했다. 1부 예배(11시) 2부 현판식(12시) - 많은 마을분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3부 산마루에서 - 매곡마을분들과 오리백숙을 먹었다.

글, 사진 풀꽃교회 서천성 목사



달성서씨감찰공파 증산문중 정기총회 개최

1월 10일 11시에 달성서씨감찰공파 증산문중 정기총회가 꽃피는시골그집에서 6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서능기 문장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업무보고와 감사 보고가 있었다.

1. 회칙 개정으로 의결 정족수를 20명으로 하였다.
2. 정기총회와 별초 비용 조정으로 회의 참가비를 없애고, 별초도 파중별로 담당 구역을 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종파는 절골 구역, 2파는 주부공 구역 (별초 입학조 묘소), 3파는 줄미등, 4파는 증산사와 등티미 비석 주변을 맡기로 하였다.
3. 문중 재산의 현금화는 집행부에 위임한다.
4. 문중 청년회 지출부분은 청년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문중을 위해 많은 종원들이 참석하고, 특히 청년회원들의 많이 참석하여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

글, 사진 증산문중 총무 서영수



華谷 徐東雲의 漢詩

新春(신춘)

- 退寒槿域迓新春 (퇴한근역아신춘)
- 嵐發江邊胡蝶隣 (람발강변호접隣)
- 林鵲含枝巢鳩勉 (임작함지소구면)
- 野牛耕畚耒延頻 (야우경담뢰연빈)
- 照陽草木回生氣 (조양초목회생기)
- 得雨山川洗穢塵 (득우산천세예진)
- 騷客吟風佳韻樂 (소객음풍가운락)
- 鶯兒弄柳雅聲伸 (앵어농류야성신)

새봄

추위가 물러가는 우리나라에 새봄이 찾아오니 아지랑이가 피는 강변에는 호랑나비가 이웃하네. 숲속의 까치는 가지를 물고 새집을 짓기에 바쁘고 들뜬 소는 눈을 간다고 쟁기 끌기 부지런하네. 햇빛 비추는 초목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비를 맞은 산천에는 더러운 티끌을 씻네. 시인은 음풍농월하며 아름다운 시를 즐기고 피꼬리는 버들을 희롱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펼치네.